

## 공격성과 비자살적 자해간의 관계: 삶의 의미와 수치심의 조절된 조절효과\*

이 은 미

영남대학교  
심리학과  
석사과정

김 소 정<sup>†</sup>


영남대학교  
심리학과  
조교수

비자살적 자해(nonsuicidal self-injury [NSSI])는 죽을 의도 없이 스스로를 해치는 행동으로, 공격성과 높은 관련성이 있다. 그러나 이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구체적인 요인들에 대한 연구는 제한적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공격성과 비자살적 자해 간의 관계에서 삶의 의미의 조절효과가 개인의 수치심 수준에 따라 달라지는지 조절된 조절모형을 통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비자살적 자해 경험이 있는 성인 300명(남성 36.3%, 여성 63.7%, 연령 범위 19-67세,  $M = 34.76$ ,  $SD = 11.02$ )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으며, SPSS PROCESS macro(Model 3)를 활용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공격성과 비자살적 자해 간의 관계에서 삶의 의미와 수치심의 삼원 상호작용이 유의하였다( $\beta = 0.09$ ,  $p = .014$ ). 구체적으로, 공격성과 비자살적 자해의 정적 관계는 삶의 의미가 낮을수록 강했는데, 이러한 삶의 의미의 보호 효과는 낮은 수치심 수준에서 유의하게 나타났다( $\beta = -.18$ ,  $p = .03$ ). 이를 통해 수치심이 낮은 개인들에게 삶의 의미를 강화하는 개입이 비자살적 자해 예방에 효과적일 수 있음이 시사되었다. 본 연구는 공격성과 비자살적 자해 간의 관계에서 삶의 의미와 수치심의 조절 역할을 규명함으로써 예방 및 개입 전략 수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주요어 : 공격성, 비자살적 자해, 삶의 의미, 수치심, 조절된 조절효과

\* 본 논문의 일부 내용은 한국임상심리학회 2025년도 봄 학술대회에서 E 포스터로 발표되었음.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 김소정 / 영남대학교 심리학과 조교수 / (38541) 경상북도 경산시 대학로 280 (대동, 영남대학교) / Tel: 053-810-2235 / E-mail: kimsojung@yu.ac.kr

 Copyright ©2025, Clinical Psychology in Korea: Research and Practice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비자살적 자해(nonsuicidal self-injury [NSSI])는 죽을 의도 없이, 고의로 자신의 신체를 손상시키는 직접적인 행동을 의미한다(Favazza, 1996; Nock, 2010). 이는 주로 정서 조절과 대인관계 문제해결을 위해 사용되며, 피부를 긁거나 때리는 것, 화상을 입히는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Klonsky, 2009). 비자살적 자해는 주로 청소년기와 초기 성인기에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되었으나(Nock & Favazza, 2009), 성인기 이후에 시작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연구에 따르면, 비자살적 자해를 18세 이후에 시작하는 비율은 약 35%라고 하며, 25세 이후의 성인기에도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Klonsky, 2011). 이러한 성인기의 비자살적 자해는 청소년기에 발생하는 비자살적 자해에 비해 주변인이 관찰하기 쉽지 않아 조기 발견이 어렵다는 특징을 가진다(Whitlock et al., 2008). 특히 비자살적 자해가 성인기에도 지속되는 경우, 신체적 손상의 정도가 심각해질 가능성이 크며 (Andrews et al., 2014), 자해로 인한 사망 위험률이 크게 증가한다(Klonsky & Olin, 2008). 즉, 비자살적 자해는 단순한 자기 손상을 넘어 자살 시도 및 자살 위험성을 증가시키는 중요한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이다(Favazza, 1996; Hamza et al., 2012; Owens et al., 2002). 이에 비자살적 자해는 개인의 건강 문제를 넘어 사회적으로도 중요한 문제로 주목받고 있으며, 성인에서의 비자살적 자해를 발생 및 지속시키는 심리적 기제에 대한 연구를 기반으로 비자살적 자해를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개입 방안이 모색되고 있다(Bürger et al., 2023; Lloyd-Richardson et al., 2024).

비자살적 자해에 대한 다양한 연구들은 공격성이 비자살적 자해와 관련된 심리적 요인

중 하나일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공격성은 타인이나 대상에 위협이나 해를 가하려는 의도적인 행위로서, 신체적 공격성, 언어적 공격성, 분노감, 적대감을 포함한다(Buss & Perry, 1992). 공격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정신장애에는 품행장애, 반사회적 성격장애 등 타인을 향한 공격적 행동화를 포함하는 외현화된 장애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으나(황선주, 박기환, 2014; Azevedo et al., 2020; Whipp et al., 2019), 우울이나 불안 등 내현화된 장애와의 관련성 또한 반복적으로 확인되어 왔으며(Chung et al., 2019; Dutton & Karakanta, 2013), 특히 스스로를 해치는 행동인 자해행동(self-injurious behavior [SIB])과의 관련성이 높게 나타났다(Shafiq et al., 2023). 이전 연구들은 공격성이 자살 행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결과들을 보여주며, 공격성이 자살 시도를 예측하는 핵심 행동 메커니즘임을 일관되게 보고해왔다(Conner et al., 2009; Swogger et al., 2011). 또한 충동성과 공격성이 자살 충동에 대한 충동적 반응을 증가시켜 자살 행동의 위험을 높인다고 제안했다(Mann, 2003). 그러나 공격성과 비자살적 자해 간의 관계를 직접 탐구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며, 최근 들어 이들 간의 연관성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선행 연구에 따르면, 공격성과 비자살적 자해는 모두 어린시절의 트라우마, 충동성, 정서 조절의 어려움과 같은 공통된 심리적 위험요소를 공유한다(O'Donnell et al., 2015). 이는 모두 세로토닌 기능 저하(Barbui et al., 2009; Kuepper et al., 2010), 시상하부-뇌하수체-부신축(hypothalamic-pituitary-adrenal axis [HPA axis])의 기능 이상(Kothadia et al., 2022), 내인성 오피오이드 시스템(endogenous opioid system)의 조절 장애(Störkel et al., 2021)와 같은 신경생물학

적 취약성과 관련이 있으며, 두 변인이 동일한 병태생리학적 요인을 공유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인지-정서 이중경로 모델에 의하면 이러한 생물학적·환경적 취약성뿐 아니라 인지적 처리 오류, 정서 조절 실패, 사회적 동기 복잡적으로 작용하여 특정 행동이 나타날 수 있다(Shafiq et al., 2021). 이 모델에 의하면 공격성과 비자살적 자해는 모두 유전적 소인과 어린시절의 부정적 경험이라는 공통된 취약성을 공유하며(O'Donnell et al., 2015), 정서적 고통 해소나 통제감 회복과 같은 사회적 동기를 기반으로 나타나는 행동 양식이다(Nock & Prinstein, 2004). 그러나 개인의 인지 정서 기제에 따라 타인을 향한 공격성 또는 자신을 향한 자해행동으로 다르게 표현될 수 있다. 즉, 공격성과 비자살적 자해는 동일한 생물학적·심리적 기제가 다양한 양상으로 발현된 결과로 볼 수 있다. 또한 스트레스-소인 모델에서는 생물학적, 심리적 취약성이 스트레스 사건과 상호작용하여 비자살적 자해로 이어질 수 있으며, 공격성이 자해행동의 주요 취약성 요소로 작용한다고 설명한다(Mann et al., 1999). Mann 등(1999)에 의하면, 이러한 취약성을 가진 개인은 같은 수준의 스트레스를 겪더라도 자해 충동을 더 쉽게 경험하며, 이는 자살시도로 이어질 위험을 높일 수 있다. 실제로, 청소년 표본에서 공격성과 비자살적 자해간에 유의한 관련성이 보고되었으며(Brunner et al., 2007; Tang et al., 2013). 임상 표본에서도 두 변인간의 관련성이 확인되었다(Wolff et al., 2014). 또한, 높은 공격성을 가진 개인들이 내적 고통을 자해를 통해 표현하는 경향이 더 크다는 연구도 있었으며(Bresin & Gordon, 2013), 청년을 대상으로 한 종단연구에서도 공격성이 비자살적 자해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확인되었다(Zhang & Zhang, 2023).

이렇듯 공격성과 비자살적 자해 간의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공격성이 높은 사람들 모두가 비자살적 자해를 보이는 것은 아니다. 비자살적 자해는 단일 요인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므로(Hawton et al., 2012; Nock et al., 2006), 보다 심층적인 이해를 위해 다양한 요인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연구들에 따르면 공격성이 높은 사람들은 우울과 부정적 인지가 높거나 가족의 지지 수준이 낮은 경우 특히 비자살적 자해에 취약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Wolff et al., 2014; Zhang & Zhang, 2023). 이러한 결과들은 공격성과 관련하여 비자살적 자해에 대한 위험요인들을 조기에 식별하고 증상경감을 위한 개입방향을 시사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비자살적 자해에 대한 기존 연구는 주로 위험 요인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Kothadia et al., 2022; Wang et al., 2022), 특히 개인의 심리적 요인이 주요한 설명 변수로 제시되는 경우가 많았다(김현지, 양유정, 2024). 반면, 비자살적 자해의 중단이나 회복과 관련된 보호요인에 대한 탐색은 상대적으로 제한적이었으며(김현지, 양유정, 2024; McEvoy et al., 2023), 이는 비자살적 자해에 대한 일차 예방적 접근의 한계로 이어지고 있다(Bürger et al., 2023). 이러한 점에서 향후 연구는 비자살적 자해의 발생 기제뿐 아니라 이를 예방하거나 완충할 수 있는 보호요인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보호요인은 공격성이 비자살적 자해에 미치는 영향을 완충할 수 있는 자원을 의미하며, 선행 연구들에서는 인간의 정신 건강, 심리적 안녕, 행복감의 근원으로 삶의 의미를 강조해 왔다(Ho et al., 2010; Kleftras & Psara,

2012; Steger et al., 2006; Sun et al., 2022). 삶의 의미는 개인이 자신의 삶에 대해 목적과 가치를 느끼는 정도를 의미하며(Steger et al., 2006), 이는 부적응적 행동을 감소시키고 정신 건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Kleiman & Beaver, 2013; Zhang et al., 2015). 삶의 의미를 높게 경험하는 사람은 위기 상황에서도 감정을 효과적으로 조절할 수 있으며, 극단적인 방법을 사용할 가능성이 낮다(Krause, 2004). 또한, 삶의 의미는 회복탄력성을 높이고 외로움을 감소시켜 심리적 고통을 완화하는 데 기여하며(Brown et al., 2023; Du et al., 2017), 미래지향적인 태도와 희망, 자기조절력을 향상시켜 스트레스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연구들도 보고되고 있다(Miao et al., 2021; Schnell & Krampe, 2020). 이러한 심리적 자원들은 적응적인 대처 전략을 활용하도록 유도함으로써 보호요인으로 기능할 수 있다. 반면, 삶의 의미가 낮은 사람은 스트레스 저항력이 부족하여 충동적이고 파괴적인 행동을 보일 위험이 크며(Frankl, 1992), 우울, 불안, 약물 남용, 사회적 고립이 증가하고 정신병리의 위험이 커진다(원두리 등, 2005). 연구에 따르면, 경계성 성격장애 집단에서 삶의 의미가 낮을수록 비자살적 자해 빈도가 유의하게 높았으며(Marco et al., 2015), 임상 표본에서도 삶의 의미가 충동성, 정서조절의 어려움을 가진 사람의 비자살적 자해를 줄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Conner et al., 2022). 또한,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삶의 만족도와 삶의 의미가 비자살적 자해의 보호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Kress et al., 2015). 즉, 삶의 의미는 단순히 정서적 안녕을 넘어, 위기 상황에서 파괴적 행동을 억제하고 보다 적응적인 대처를 가능하게 하는 심리적 자원으로 기

능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공격성과 비자살적 자해 간의 관계에서 삶의 의미가 조절효과를 가지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한편, 삶의 의미가 공격성과 비자살적 자해 간의 관계를 조절한다고 해도, 이러한 조절효과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될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보호요인으로서의 삶의 의미가 효과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조건을 탐색할 필요가 있다. 선행연구들을 통해 자기 조절 능력의 부족(Baumeister & Vohs, 2007), 사회적 지지의 부족(Cohen & Wills, 1985)이 스트레스 상황에서 보호요인을 활용하는 것을 어렵게 만든다는 점이 확인된 바 있으며, 수치심 또한 보호요인의 효과를 감소시킬 가능성이 있다. 수치심은 자기 자신을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무가치하다고 느끼게 만드는 감정으로, 타인의 평가를 의식해 다른 사람이 자신을 무시한다는 느낌을 포함하는 정서이다(Goss et al., 1994; Lewis, 1971; Tangney & Dearing, 2003). 이는 개인의 자아 개념에 심각한 손상을 초래하며 정서 조절의 어려움을 유발할 수 있다(Tangney & Dearing, 2003). 또한 이러한 스스로에 대한 비판적 태도는 진단 범주를 초월하여 여러 정신 장애에 영향을 미치고 취약성을 증가시킨다(Gilbert & Irons, 2005; Zuroff et al., 2005). 수치심이 높은 사람들은 스스로에게 친절을 베풀거나, 자기 내면의 따뜻함을 느끼거나, 자기자비를 실천하는 데 상대적인 어려움이 있으며(Gilbert, 2000; Gilbert et al., 2004; Linehan, 1993; Neff, 2003; Whelton & Greenberg, 2005), 이를 생성하더라도, 긴장을 풀고 마음의 평안을 주는 심리적 안정 상태(자비중심치료에서 '진정 체계'라 부르는 상태)에 도달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실제적인 정서적 안정을 느끼기 힘들다(Gilbert, 2000; Le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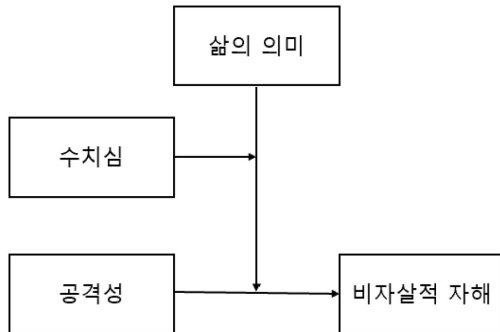


그림 1. 연구모형

2005). 이렇듯 수치심은 긍정적인 심리적 자원을 활용하는 능력을 저하시켜 보호요인의 효과를 감소시킬 수 있다. 따라서 삶의 의미가 공격성과 비자살적 자해의 관계를 조절하더라도, 그 효과는 개인의 수치심 수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공격성과 비자살적 자해 간의 관계에서 삶의 의미의 조절효과를 확인하고, 이러한 조절효과가 수치심의 수준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 조절된 조절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그림 1 참조). 이를 통해 공격성, 삶의 의미, 수치심 간의 삼원 상호작용이 비자살적 자해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 나아가 보호요인이 실제로 작동하는 방식에 대한 보다 정교한 이해를 시도함으로써, 개인 특성을 고려한 비자살적 자해의 개입 및 예방 전략 수립에 기여하고자 한다.

## 방 법

### 연구대상

본 연구의 참가자는 일평생 비자살적 자해를 한 번 이상 경험한 적이 있는 만 19세 이

상 성인들로, 전국에서 모집되었다. 참여자는 온라인 패널 데이터 회사를 통해 모집되었으며, 연구 참가 기준을 충족한 사람들 중 300명이 최종 표본으로 선정되었다. 모든 참가자들에게는 연구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제공되었으며, 참가자는 이에 자발적으로 동의한 후 패널 데이터 회사의 온라인 설문 웹페이지를 통해 연구에 참여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에게는 참여를 중지하고 싶은 경우 언제든지 즉각 연구 참여를 중단할 수 있음이 사전에 고지되었으며, 설문을 완성하여 제출한 즉시 소정의 참가비가 제공되었다. 수집된 자료 중 본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는 문항만을 선별하여 분석에 사용하였으며, 불성실한 응답이나 결측값은 데이터 수집 단계에서 이미 제외되었다. 연구 참가자의 평균연령은 34.76세( $SD = 11.02$ ), 연령 범위는 19세에서 67세 사이였고, 전체 300명 중 여성이 191명(63.7%), 남성이 109명(36.3%)이었다. 전체 참가자들의 일평생 평균 자해 빈도는 13.09회( $SD = 10.66$ )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저자들의 소속기관 생명윤리위원회(IRB) 승인 하에 수행되었다.(No. 7002016-A-2024-164)

### 측정도구

#### 한국판 자해기능 평가지(The Functional Assessment of Self-Mutilation [FASM])

비자살적 자해행동을 측정하기 위해 Lloyd 등(1997)에 의하여 개발된 도구로 권혁진과 권석만(2017)에 의해 번안 및 타당화되었다. A와 H의 항 중 기타에 해당하는 두 문항을 제외한 총 39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비자살적 자해의 방법 및 빈도, 자해행동과 관련된 요인, 비자살적 자해를 하는 이유 및 목적 등에

대한 탐색을 할 수 있다. Lloyd 등(1997)의 연구에서의 내적 일치도(Cronbach's  $\alpha$ )는 .65-.66였으며, 권혁진과 권석만(2017)의 연구에서는 .80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비자살적 자해 변인의 측정을 위해 '자해의 방법 및 빈도'를 묻는 문항 중 '기타'를 제외한 총 11개의 문항을 사용하였으며, 사용된 문항에서의 내적 일치도는 .80이었다.

#### **한국판 Buss-Perry 공격성 질문지(Korean Buss-Perry Aggression Questionnaire [K-BPAQ])**

Buss와 Perry(1992)가 개발한 도구로 국내에서는 서수균과 권석만(2002)에 의해 번안 및 타당화되었다. 영문판은 신체적 공격성, 언어적 공격성, 분노감, 적대감을 측정하는 29개의 문항으로 구성되나, 국내판은 27개의 문항만 포함하고 있다. 각 문항은 5점 Likert식 척도(1 = 전혀 그렇지 않다, 5 = 매우 그렇다)상에 평정되도록 하였다. Buss와 Perry(1992)의 연구에서 내적 일치도(Cronbach's  $\alpha$ )는 .89였으며, 서수균과 권석만(2002)의 연구에서는 내적 일치도(Cronbach's  $\alpha$ )가 .86,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81이었다. 본 연구에서의 내적 일치도는 .92로 나타났다.

#### **삶의 의미 질문지(Meaning in Life Questionnaire [MLQ])**

삶의 의미 질문지는 Steger 등(2004)이 개발한 도구로, 국내에서는 원두리 등(2005)이 번안하여 국내 대학생을 대상으로 타당화되었다. MLQ는 의미추구, 의미발견이라는 두 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의미추구 점수가 높을수록 의미를 추구하고자 하는 동기가 강하며, 의미발견 점수가 높을수록 삶에서 의미를 많이 가지고 있다고 지각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의미추구 5문항과 의미발견 5문항의 총 10문항으로, 응답은 '1점(매우 아니다)'에서 '5점(매우 그렇다)'까지 5점 리커트 척도를 사용한다. 원두리 등(2005)의 연구에서 총 문항의 내적 일치도(Cronbach's  $\alpha$ )는 .90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내적 일치도는 .92로 나타났다.

#### **한국판 상태 수치심 척도(Korea Version of State Shame Scale [K-SSS])**

K-SSS는 Marschall 등(1994)이 개발한 상태 수치심 및 죄책감 척도(State Shame and Guilt Scale [SSGS])를 국내에서 유정미(2018)가 수치심 하위 요인만을 번안하고 타당화한 척도로서, 현재 시점에서 경험하는 수치심의 정도를 간결하게 평가할 수 있다(Cavalera et al., 2017). 상태 수치심은 다른 수치심 척도들과 중간에서 높은 수준의 상관을 보이면서도(신재은 등, 2015; 최현수, 신희천, 2016; Luoma, et al., 2018; Tilghman-Osborne et al., 2008), 현재 정서 상태와의 관련성을 더 명확하게 반영한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목적에 부합한다고 판단되었다(Cavalera et al., 2022). 유정미(2018)의 연구에서 총 5문항의 K-SSS는 SSGS의 수치심 요인과 동일한 단일 요인 모형(상태 수치심)임이 확인되었으며, 원판 SSGS의 내적 일치도(Cronbach's  $\alpha$ )는 .89, 유정미(2018)의 연구에서는 .89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에서의 내적 일치도는 .91이었다.

#### **자료 분석**

통계 분석은 SPSS 23.0과 SPSS PROCESS macro 4.2를 사용하여 수행되었다.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및 인구통계학적 배경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왜도, 첨도를 비롯한 주요 변수에 대한 기술 통계량을 산출하였다. 또한 변수 간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Pearson 상관분석을 시행하였다. 공격성과 비자살적 자해의 관계에서 삶의 의미의 조절효과에 대한 수치심의 조절된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SPSS PROCESS macro의 Model 3를 사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유의성 검증에는 bootstrapping을 사용하였다. bootstrapping에서의 신뢰구간은 95% 수준으로 설정하였으며, 10,000개의 표본을 추출하여 통계적 유의성을 확인하였다(Hayes & Preacher, 2013). 또한 분석에 사용되는 변인들은 가설검정을 의미 있게 만들고 해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평균중심화 하였으며, 삼원 상호작용의 구체적인 유의성 영역은 존슨-나이만(Johnson-Neyman) 방법을 통해 검증하였다.

## 결 과

###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주요 변인들의 일반적인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다변량 정규성을 확인하기 위해 왜도와 첨도를 산출하였으며, 평균과 표준편차를 확인하였다. 분석 결과, 모든 변인의 왜도 절댓값이 3.0을 넘지 않고 첨도 절댓값이 10.0을 넘지 않아, 정규성 가정이 충족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Kline, 2015). 또한 모든 측정변인들의 분산팽창지수(Variance Inflation Factor [VIF])가 10 미만으로 나타나 다중공선성 문제가 없는 것을 확인하였다.

한편, 주요 변인들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Pearson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상관분석 결과에 따르면 모든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비자살적 자해는 공격성( $r = .42, p < .01$ ), 수치심( $r = .37, p < .01$ )과는 정적 상관을, 삶의 의미( $r = -.24, p < .01$ )와는 부적 상관을 보였다. 삶의 의미는 공격성( $r = -.18,$

표 1. 주요 변인들의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변인	1	2	3	4
1. 공격성	—			
2. 삶의 의미	-.18**	—		
3. 수치심	.51**	-.38**	—	
4. 비자살적 자해	.42**	-.24**	.37**	—
M(SD)	60.09(18.39)	43.30(11.38)	10.60(5.21)	13.09(10.66)
왜도	.94(.14)	-.35	.68	1.20
첨도	.60(.28)	.66	-.56	.92
VIF	1.17	1.35	1.53	—

주. VIF는 측정변인들의 분산팽창지수를 의미한다.

\* $p < .05$ , \*\* $p < .01$ .

$p < .01$ ), 수치심( $r = -.38, p < .01$ )과 모두 부적 상관을 보였으며, 공격성과 수치심( $r = .51, p < .01$ )은 정적 상관을 보였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표 1에 제시하였다.

### 조절된 조절효과 검증

본 연구는 공격성이 비자살적 자해에 미치는 영향에서 삶의 의미의 조절효과를 수치심이 조절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Process Macro 모형 3번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는 표 2에 제시되었으며, 공격성, 삶의 의미, 수치심의 삼원 상호작용항이 유의하여( $\beta = .09, p < .05$ ), 공격성과 비자살적 자해의 관계에서 삶의 의미의 조절효과가 수치심에 의해 조절될 가능성이 시사되었다. 삼원 상호작용의 해석은 X → Y의 계수, 2원 상호항의 계수, 3원 상호항의 계수의 부호에 따라 8개 유형의 해석이 가능한데, 삶의 의미와 수치심의 조절된 조절효과는 B유형으로 나타났다(Hayes,

2022). B유형은 독립변수가 증가하면 종속변수도 증가(+하는 데 제1조절변수가 증가하면 이러한 증가폭이 완화되는 완충효과(-)가 나타나며 제2조절변수가 증가하면 완충효과가 감소한다(+고 해석한다. 이에 따라 해석해 보면, 공격성은 비자살적 자해를 증가시키며, 삶의 의미는 그 효과를 완화시키고 그 삶의 의미의 완화 효과는 수치심이 높아질 경우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수치심 수준을 낮은 집단(-1 SD), 중간 집단(평균), 높은 집단(+1 SD)으로 나누어 효과크기를 비교한 결과를 표 3에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삶의 의미의 완화 효과는 수치심 수준이 낮은 집단에서는 유의했으나( $\beta = -.18, p < .05$ ), 중간 집단과 높은 집단에서는 유의하지 않았다( $\beta = -.09, p = .15, ns; \beta = -.00, p = .98, ns$ ). 즉, 수치심 수준이 낮은 경우에만 삶의 의미의 수준에 따라 공격성과 비자살적 자해의 관계가 달라지는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2. 조건부 과정 분석의 회귀계수

	종속변인: 비자살적 자해					
	B	$\beta$	SE	t	95% CI	
					LLCI	ULCI
공격성	.21	.36	.04	5.58***	.13	.28
삶의 의미	-.17	-.18	.06	-2.93**	-.28	-.05
수치심	.31	.15	.14	2.31*	.05	.58
공격성 x 삶의 의미	-.01	-.09	.00	-1.44	-.01	.00
공격성 x 수치심	.00	.03	.01	.46	-.01	.02
삶의 의미 x 수치심	.00	.02	.01	.03	-.02	.02
공격성 x 삶의 의미 x 수치심	.00	.09	.00	2.48*	.00	.00

$R^2 = .238, F(7, 292) = 13.040$

\* $p < .05$ , \*\* $p < .01$ , \*\*\* $p < .001$ .

표 3. 수치심 수준에 따른 조건부 효과의 유의성

수치심	B	$\beta$	F	df <sup>1</sup>	df <sup>2</sup>	P
-5.21(-1 SD)	-.01	-.18	4.76	1	292	.03
0.00(M)	-.01	-.09	2.08	1	292	.15
5.21(+1 SD)	-.00	-.00	.00	1	292	.98

표 4. 낮은 수치심 수준에서 삶의 의미의 수준에 따른 조건부 효과의 유의성

조절변인		B	$\beta$	SE	95% CI	
삶의 의미	수치심				LLCI	ULCI
-11.38(-1 SD)	-5.21	.30	.52	.08	.15	.45
0.00(M)	-5.21	.19	.33	.05	.09	.29
11.38(+1 SD)	-5.21	.09	.15	.06	-.04	.21

주. LLCI, ULCI = 95% 신뢰구간 내에서의 하한값, 상한값.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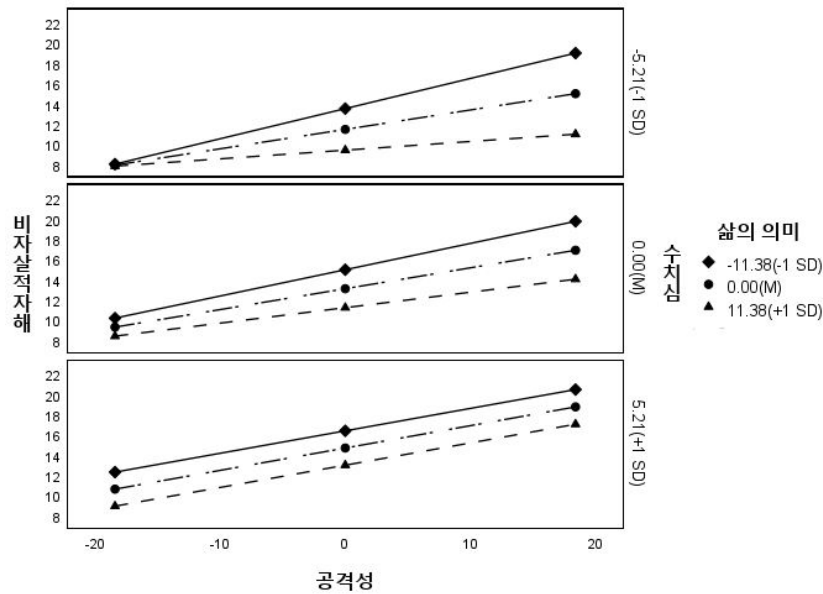


그림 2. 공격성, 삶의 의미, 수치심의 상호작용 그래프

또한 조절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던 낮은 수치심 수준을 기준으로, 삶의 의미가 낮은 집단(-1 SD), 중간 집단(평균), 높은 집단(+1 SD)으로 구분하여 공격성과 삶의 의미의 상호작용효과의 변화양상을 확인하였으며, 이를 표 4에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낮은 집단

( $\beta = .52, p < .001$ ), 중간 집단( $\beta = .33, p < .001$ )에서 조절효과가 유의하였으며, 높은 집단( $\beta = .15, ns$ )에서는 조절효과가 유의하지 않았다. 이를 시각적으로 확인하기 위하여 삶의 의미 수준에 따른 공격성과 비자살적 자해의 기울기를 산출하였으며, 수치심 수준에 따라 3개의 그래프가 도출되었다. 이는 그림 2에 제시되었다. 또한 Johnson-Neyman 방법을 통해 수치심의 조절된 조절효과가 어느 지점에서부터 유의하게 나타나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본 결과, 수치심이 7.51(평균중심화 점수 = -3.10)보다 낮은 경우에만 삶의 의미의 조절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절된 조절효과가 유의한 집단은 전체 응답자의 38.33%로 확인되었으며, 이러한 효과는 비자살적 자해 분산의 1.6%를 설명하였다.

## 논 의

본 연구는 공격성과 비자살적 자해(nonsuicidal self-Injury [NSSI]) 간의 관계에서 삶의 의미와 수치심의 조절된 조절효과를 검증하였다. 연구 결과, 공격성과 비자살적 자해의 정적 관계는 삶의 의미가 낮을 때 더욱 강하게 나타났으며, 이러한 보호 효과는 수치심이 낮을 때 유의하였다. 반면, 수치심 수준이 평균 이상일 경우 삶의 의미의 조절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비자살적 자해 예방 및 개입 전략 수립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우선, 본 연구는 공격성과 비자살적 자해 간에 유의한 정적 관련성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공격성이 높은 개인이 자해행동에 취약하다는 선행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로서

(Mann et al., 1999), 청소년(Brunner et al., 2007; Tang et al., 2013), 임상 집단(Wolff et al., 2014), 청년(Zhang & Zhang, 2023) 표본에서 공격성과 비자살적 자해의 관계를 살펴본 다른 연구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의 지역사회 성인 표본에서도 공격성과 비자살적 자해 간의 관계가 유의함이 확인되었다. 다만, 기존 연구에서 공격성은 충동 통제의 어려움, 정서 조절 문제, 우울과 같은 다양한 심리적 요인을 매개로 비자살적 자해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으며, 이러한 경로는 문화적·환경적 맥락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집단주의 문화에서의 규범에 대한 사회적 압력이 정신건강을 악화시킬 수 있으며(Kim & Kim, 2025), 청소년기의 학대 경험, 부모의 정서 상태와 같은 가족 환경이 공격성, 비자살적 자해 증상 수준과 관련되어 있음이 보고된 바 있다(Zhang & Zhang, 2023). 이러한 맥락에서 공격성과 비자살적 자해 간의 관계를 보다 정교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심리적 요인뿐만 아니라, 사회적·문화적 요인을 함께 고려한 통합적 접근이 필요함이 시사된다.

다음으로 공격성과 비자살적 자해의 관계에서 삶의 의미의 보호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연구에서는 삶의 의미가 낮을 경우 공격성과 비자살적 자해의 관계가 더욱 강하게 나타났다. 이는 삶의 의미가 낮은 개인이 스트레스 상황에서 보다 충동적이고 자해적인 방식으로 감정을 해소하려는 경향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는 기존의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로(Frankl, 1992), 삶의 의미가 낮은 사람이 극단적인 방법을 사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결과 역시 지지한다(Krause, 2004). 선행 연구에 따르면 삶의 의미가 높은 사람은 의미 탐색 과정을 통해 부정적 감정을 효과적으로 재해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충동성을 억제하며 대안적인 대처 전략을 형성할 수 있다(Conner et al., 2022). 또한 경계성 성격장애 환자는 공허감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비자살적 자해를 사용하는데, 이때 삶의 의미 결여가 위험요인으로 작용한다(Marco et al., 2015). 인지-정서 이중경로 모델에서는 삶의 의미가 정서 조절 경로를 강화함으로써 사회적 연결감을 높이고, 이를 통해 공격성과 비자살적 자해의 공동 발생(dual-harm)을 예방한다고 설명하기도 하였다(Shafti et al., 2021). 이러한 맥락에서, 삶의 의미는 공격성과 비자살적 자해 간의 관계를 조절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설명될 수 있다. 본 연구결과는 삶의 의미가 비자살적 자해의 보호요인으로 작용했던 기존 연구들과 일맥상통하며(Kress et al., 2015; Marco et al., 2015), 이러한 보호 효과가 다양한 집단과 맥락에서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특히 본 연구는 삶의 의미의 보호 효과가 수치심 수준에 따라 달라지는 조절된 조절효과를 확인했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를 확장한다. 기존 연구들은 삶의 의미와 같은 보호요인이 실제로 효과를 발휘하는 데에는 자기 조절 능력, 사회적 지지와 같은 다양한 개인차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 언급되었고(Baumeister & Vohs, 2007; Cohen & Wills, 1985), 본 연구는 삶의 의미의 보호 효과를 결정짓는 추가적인 심리적 요인으로 수치심에 주목하였다. 연구 결과, 삶의 의미의 보호 효과는 낮은 수치심을 가진 개인에게서만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공격성과 비자살적 자해간의 관계를 조절하는 데 있어, 수치심이 낮은 개인에게 삶의 의미를 강화하는 개입이 특히 효과적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즉, 수치심이 낮은 개인은 삶의 의미를 자원으로 활용하

여 공격성이 비자살적 자해로 이어지는 경로를 조절할 수 있다. 그러나 수치심이 평균 이상인 경우 이러한 보호 효과가 사라졌으며, 이는 수치심이 높은 개인이 긍정적인 심리적 자원을 생성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는 기존 연구(Gilbert et al., 2004; Neff, 2003)와도 부합하는 결과이다. 또한 수치심이 높은 경우, 삶의 의미를 느낄 수 있는 능력이 저하되거나, 삶의 의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해행동을 감소시키는 데 충분한 영향을 미치지 못할 가능성을 시사한다(Gilbert, 2000; Tangney & Dearing, 2003). 즉, 수치심이 높은 개인은 자기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고수하며(Tangney & Dearing, 2003) 삶의 의미를 긍정적인 방식으로 해석하거나 활용하는 데 한계를 가질 수 있다. 이는 삶의 의미가 높은 경우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대처 전략을 활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기존 연구들과 맥락을 같이하나(Krause, 2004; Marco et al., 2015), 이러한 보호 효과가 보편적이지 않으며, 개인의 수치심 수준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새롭게 규명한 결과이다. 즉, 삶의 의미가 공격성과 비자살적 자해의 관계에서 보호요인으로 작용하더라도, 수치심과 같은 개인의 심리적 특성에 따라 그 효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수치심뿐만 아니라, 삶의 의미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추가적인 심리·사회적 요인들을 탐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한계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횡단적 연구로 설계되어 변수 간 인과 관계를 명확히 규명하는 데 한계가 있다. 공격성, 삶의 의미, 수치심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비자살적 자해

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정밀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종단적 연구 설계를 적용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는 비자살적 자해 빈도를 결과 변인으로 고려하였으며, 자해의 심각도를 별도로 반영하지 못했다. 그러나 기존 연구에 따르면 비자살적 자해의 빈도와 심각도가 심리적 기제 및 위험 요인과 상이한 관련성을 보일 수 있으므로(Whitlock et al., 2008), 후속 연구에서는 비자살적 자해의 심각도 수준을 고려한 분석도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셋째, 본 연구는 비자살적 자해 경험이 있는 지역사회 성인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는 기존 연구들이 주로 청소년과 초기 성인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을 고려할 때, 보다 넓은 연령대를 포함하여 일반 성인의 비자살적 자해를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연구대상자가 비임상적 자해 집단으로, 전체 참가자 중 평생 단 한 번의 자해삽화를 보고한 사람 또한 일부 포함하고 있었던 점(18명, 전체의 6%), 본 연구 결과가 상대적으로 심각한 자해행동과 심리적 어려움을 보이는 임상적 수준의 자해집단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임상군과 비임상군에서의 비자살적 자해의 발생기제에서의 차이점을 고려할 때(Glenn & Klonsky, 2010), 후속 연구에서는 DSM-5-TR(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Fifth Edition, Text Revision)상의 진단 준거 따라 지난 1년간 5일 이상의 자해삽화를 경험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여, 본 연구에서의 결과가 임상집단에도 일반화될 수 있는지 탐색할 필요가 있겠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수치심을 공격성과 비자살적 자해 간 관계에서 삶의 의미의 보호효과를 조절하는 변인으로 설정하여 조절된 조절효과를 검

증하였다. 이는 수치심이 삶의 의미 개입의 효과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확장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나, 수치심 자체가 비자살적 자해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이나 공격성과의 상호작용은 탐색하지 못하였다는 아쉬움이 있다. 기존 연구에서는 수치심이 비자살적 자해의 위험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이 보고되어 왔으며(Vanderhei et al., 2014), 수치심이 정서조절 곤란(이현웅, 최아론, 2025), 자기비판(Xavier et al., 2016), 분노반추(안혜정, 박기환, 2024) 등을 통해 비자살적 자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수치심이 비자살적 자해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통합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 결과가 비자살적 자해 예방 및 개입 전략 수립에 제공하는 시사점은 아래와 같다. 첫째, 삶의 의미를 강화하는 개입이 공격성과 비자살적 자해 간의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는 데 유용할 수 있다. 실제로 의미 중심 치료, 수용 전념 치료 등의 개입이 삶의 의미를 증진시키는 데 효과적인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Steger et al., 2006; Vos, 2018). 따라서 공격성과 비자살적 자해 위험이 높은 개인을 대상으로 이러한 개입을 적용하는 것이 자해 예방 및 지속 방지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둘째, 삶의 의미를 강화하는 개입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효과를 가지는 것은 아니므로, 수치심 수준을 고려한 차별적 개입 전략이 필요하다. 본 연구 결과에 따르면, 삶의 의미의 보호 효과는 수치심이 낮은 개인에게서만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는 수치심이 낮은 개인에게 삶의 의미를 증진하는 개입이 특히 효과적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반면, 수치심이 높은 개인에게는 삶의 의미에 대한 개입

만으로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삶의 의미를 증진시키는 개입에 앞서 자기자비 훈련이나 인지행동치료를 병행하여 부정적인 자기개념에 개입하여 수치심을 완화하는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Gilbert & Procter, 2006; Neff, 2003). 이는 수치심이 높은 개인은 자기 비판적 사고 패턴을 가지고 있어, 삶의 의미를 경험하더라도 이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활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수치심 수준을 사전에 평가한 후, 그에 따라 개입 전략을 조정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는 공격성과 비자살적 자해 간의 관계를 조절하는 보호요인과 그 한계를 탐색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인 비자살적 자해 예방 및 개입 전략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임상적 의의가 있다. 후속 연구들에서는 보다 다양한 심리사회적 변인을 고려하여, 개인의 특징적인 심리적 어려움에 부합하는 개입 방안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권혁진, 권석만 (2017). 한국판 자해기능 평가지 (The Functional Assessment of Self-Mutilation) 의 타당화 연구: 대학생을 중심으로.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3(1), 187-205.  
<https://doi.org/10.15842/CPKJOURNAL.PUB.3.1.187>
- 김현지, 양유정 (2024). 성인의 비자살적 자해 관련 국내 연구 동향 분석. *보건의료생명과학논문지*, 12(1), 69-77.  
<https://doi.org/10.22961/JHCLS.2024.7.1.069>
- 서수균, 권석만 (2002). 자존감 및 자기에 성향과 공격성의 관계.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21(4), 809-826.  
<https://kiss.kstudy.com/Detail/Ar?key=1984278>
- 신재은, 김설민, 전미유, 박두흠, 유승호, 하지현, 유재학 (2015). 한국판 수치심 경험 척도(K-ESS)의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7(1), 23-39.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1963646>
- 안혜정, 박기환 (2024). 대학생의 내면화된 수치심이 분노반추를 매개로 비자살적 자해에 미치는 영향.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4(1), 723-736.  
<https://doi.org/10.22251/jlcci.2024.24.1.723>
- 원두리, 권선중, 김교현 (2005). 한국판 삶의 의미척도의 타당화 연구: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0(2), 211-225.  
<https://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11096651>
- 유정미 (2018). 자기자비 글쓰기가 상태 수치심의 감소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s of self-compassion writing program on the reduction of state shame [석사학위논문,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DBpia.  
<https://www.dbpia.co.kr/journal/detail?nodeId=T14661406>
- 이현웅, 최아론 (2025). 내면화된 수치심과 비자살적 자해의 관계: 정서조절곤란과 비자살적 자해 기대 및 신념의 순차적 매개효과. *상담학연구*, 26(1), 297-326.  
<https://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12111011>
- 최현수, 신희천 (2016). 한국판 관계적 수치심

- 척도(KISI)의 타당화. *상담학연구*, 17(2), 81-100.  
<https://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11123165>
- 황선주, 박기환 (2014). 우울-품행장애성향 청소년의 전위 공격성에 관한 탐색적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9(4), 1125-1144.  
[https://www.kci.go.kr/kciportal/landing/article.kci?arti\\_id=ART001945857](https://www.kci.go.kr/kciportal/landing/article.kci?arti_id=ART001945857)
- Andrews, T., Martin, G., Hasking, P., & Page, A. (2014). Predictors of onset for non-suicidal self-injury within a school-based sample of adolescents. *Prevention Science*, 15, 850-859.  
<https://doi.org/10.1007/s11121-013-0412-8>
- Azevedo, J., Vieira-Coelho, M., Castelo-Branco, M., Coelho, R., & Figueiredo-Braga, M. (2020). Impulsive and premeditated aggression in male offenders with antisocial personality disorder. *PLOS ONE*, 15(3), Article e0229876.  
<https://doi.org/10.1371/journal.pone.0229876>
- Barbui, C., Esposito, E., & Cipriani, A. (2009). Selective serotonin reuptake inhibitors and risk of suicide: A systematic review of observational studies. *CMAJ: Canadian Medical Association Journal*, 180(3), 291-297.  
<https://doi.org/10.1503/cmaj.081514>
- Baumeister, R. F., & Vohs, K. D. (2007). Self-regulation, ego depletion, and motivation. *Social and Personality Psychology Compass*, 1(1), 115-128.  
<https://doi.org/10.1111/j.1751-9004.2007.00001.x>
- Bresin, K., & Gordon, K. H. (2013). Endogenous opioids and nonsuicidal self-injury: A mechanism of affect regulation. *Neuroscience & Biobehavioral Reviews*, 37(3), 374-383.  
<https://doi.org/10.1016/j.neubiorev.2013.01.020>
- Brown, T. L., Oliffe, J. L., Kealy, D., Rice, S. M., Seidler, Z. E., & Ogrodniczuk, J. S. (2023). The influence of meaning in life on psychological distress among men: A serial multiple mediation model involving resilience and loneliness. *Current Research in Behavioral Sciences*, 4, Article e100114.  
<https://doi.org/10.1016/j.crbeha.2023.100114>
- Brunner, R., Parzer, P., Haffner, J., Steen, R., Roos, J., Klett, M., & Resch, F. (2007). Prevalence and psychological correlates of occasional and repetitive deliberate self-harm in adolescents. *Archives of Pediatrics & Adolescent Medicine*, 161(7), 641-649.  
<https://doi.org/10.1001/archpedi.161.7.641>
- Bürger, A., von Schoenfeld, C., Scheiner, C., Seidel, A., Wasserscheid, A., Gad, D., Kittel-Schneider, S., Romanos, M., & Reiter, A. M. (2023). Universal prevention for non-suicidal self-injury in adolescents is scarce: A systematic review. *Frontiers in Psychiatry*, 14, Article e1130610.  
<https://doi.org/10.3389/fpsy.2023.1130610>
- Buss, A. H., & Perry, M. (1992). The Aggression Questionnair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3(3), 452-459.  
<https://doi.org/10.1037/0022-3514.63.3.452>
- Cavalera, C., Andreani, P., Baumgartner, O., & Oasi, O. (2022). Do immature defense mechanisms mediate the relationship between shame, guilt, and psychopathological symptoms?. *Frontiers in Psychology*, 13, Article e832237.  
<https://doi.org/10.3389/fpsyg.2022.832237>

- Cavalera, C., Pepe, A., Zurloni, V., Diana, B., & Realdon, O. (2017). A short version of The State Shame and Guilt Scale (SSGS-8). *Tpm-Testing, Psychometrics, Methodology in Applied Psychology*, 24(1), 99-106.  
<https://dx.doi.org/10.4473/TPM24.1.6>
- Chung, J. E., Song, G., Kim, K., Yee, J., Kim, J. H., Lee, K. E., & Gwak, H. S. (2019). Association between anxiety and aggression in adolescents: A cross-sectional study. *BMC Pediatrics*, 19(1), Article e115.  
<https://doi.org/10.1186/s12887-019-1479-6>
- Cohen, S., & Wills, T. A. (1985). Stress, social support, and the buffering hypothesis. *Psychological Bulletin*, 98(2), 310-357.  
<https://doi.org/10.1037/0033-2909.98.2.310>
- Conner, B. T., Kentopp, S. D., O'Donnell, M. B., Wallace, G. T., Morse, J. L., Arkfeld, P. A., Steger, M. F., & Rebecca, R. (2022). Meaning in life moderates relations between personality and temperament and nonsuicidal self-injury in hospitalized adolescent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51(8), 1622-1635.  
<https://doi.org/10.1007/s10964-022-01615-3>
- Conner, K. R., Swogger, M. T., & Houston, R. J. (2009). A test of the reactive aggression-suicidal behavior hypothesis: Is there a case for proactive aggression?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18(1), 235-240.  
<https://doi.org/10.1037/a0014659>
- Du, H., Li, X., Chi, P., Zhao, J., & Zhao, G. (2017). Meaning in life, resilience, and psychological well-being among children affected by parental HIV. *AIDS Care*, 29(11), 1410-1416.  
<https://doi.org/10.1080/09540121.2017.1307923>
- Dutton, D. G., & Karakanta, C. (2013). Depression as a risk marker for aggression: A critical review. *Aggression and Violent Behavior*, 18(2), 310-319.  
<https://doi.org/10.1016/j.avb.2012.12.002>
- Favazza, A. R. (1996). *Bodies under siege: Self-mutilation and body modification in culture and psychiatry*.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https://www.amazon.com/Bodies-under-Siege-Self-mutilation-Modification/dp/0801853001>
- Frankl, V. E. (1992). *Man's search for meaning: An introduction to logotherapy* (4th ed.). Beacon press.  
<https://www.amazon.com/Mans-Search-Meaning-Introduction-Logotherapy/dp/0807029181>
- Gilbert, P. (2000). The relationship of shame, social anxiety and depression: The role of the evaluation of social rank. *Clinical Psychology & Psychotherapy*, 7(3), 174-189.  
[https://doi.org/10.1002/1099-0879\(200007\)7:3<174::AID-CPP236>3.0.CO;2-U](https://doi.org/10.1002/1099-0879(200007)7:3<174::AID-CPP236>3.0.CO;2-U)
- Gilbert, P., Clarke, M., Hempel, S., Miles, J. N., & Irons, C. (2004). Criticizing and reassuring oneself: An exploration of forms, styles and reasons in female students. *British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43(1), 31-50.  
<https://doi.org/10.1348/014466504772812959>
- Gilbert, P., & Irons, C. (2005). Focused therapies and compassionate mind training for shame and self-attacking. In P. Gilbert (Ed.), *Compassion: Conceptualisations, research and use in psychotherapy* (pp. 263-325). Routledge.  
<https://www.taylorfrancis.com/chapters/edit/10.4324/9780203003459-11/focused-therapies-compass>

- sionate-mind-training-shame-self-attacking-paul-gilbert-chris-irons
- Gilbert, P., & Procter, S. (2006). Compassionate mind training for people with high shame and self criticism: Overview and pilot study of a group therapy approach. *Clinical Psychology & Psychotherapy*, 13(6), 353-379.  
<https://doi.org/10.1002/cpp.507>
- Glenn, C. R., & Klonsky, E. D. (2010). A multimethod analysis of impulsivity in nonsuicidal self-injury. *Personality Disorders: Theory, Research, and Treatment*, 1(1), 67-75.  
<https://doi.org/10.1037/a0017427>
- Goss, K., Gilbert, P., & Allan, S. (1994). An exploration of shame measures-I: The other as Shamer scale.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17(5), 713-717.  
[https://doi.org/10.1016/0191-8869\(94\)90149-X](https://doi.org/10.1016/0191-8869(94)90149-X)
- Hamza, C. A., Stewart, S. L., & Willoughby, T. (2012). Examining the link between nonsuicidal self-injury and suicidal behavior: A review of the literature and an integrated model. *Clinical Psychology Review*, 32(6), 482-495.  
<https://doi.org/10.1016/j.cpr.2012.05.003>
- Hawton, K., Saunders, K. E., & O'Connor, R. C. (2012). Self-harm and suicide in adolescents. *The Lancet*, 379(9834), 2373-2382.  
[https://doi.org/10.1016/S0140-6736\(12\)60322-5](https://doi.org/10.1016/S0140-6736(12)60322-5)
- Hayes, A. F. (2022). *Introduction to mediation, moderation, and conditional process analysis: A regression-based approach* (3rd ed.). Guilford Press.  
<https://www.guilford.com/books/Introduction-to-Mediation-Moderation-and-Conditional-Process-Analysis/Andrew-Hayes/9781462549030>
- Hayes, A. F., & Preacher, K. J. (2013). Conditional process modeling: Using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to examine contingent causal processes. In G. R. Hancock & R. O. Mueller (Ed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 second course* (2nd ed., pp. 219-266). IAP Information Age Publishing.  
[https://quantpsy.org/pubs/hayes\\_preacher\\_2013.pdf](https://quantpsy.org/pubs/hayes_preacher_2013.pdf)
- Ho, M. Y., Cheung, F. M., & Cheung, S. F. (2010). The role of meaning in life and optimism in promoting well-being.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48(5), 658-663.  
<https://doi.org/10.1016/j.paid.2010.01.008>
- Kim, S., & Kim, D. (2025). Mental health help-seeking among Korean men: The influence of stigma, masculine norms, and face. *BMC Psychology*, 13(1), Article e461.  
<https://doi.org/10.1186/s40359-025-02793-y>
- Kleifaras, G., & Psarra, E. (2012). Meaning in life, psychological well-being and depressive symptomatology: A comparative study. *Psychology*, 3(4), 337-345.  
<https://doi.org/10.4236/psych.2012.34048>
- Kleiman, E. M., & Beaver, J. K. (2013). A meaningful life is worth living: Meaning in life as a suicide resiliency factor. *Psychiatry Research*, 210(3), 934-939.  
<https://doi.org/10.1016/j.psychres.2013.08.002>
- Kline, P. (2015). *A handbook of test construction (psychology revivals): Introduction to psychometric design*. Routledge.  
<https://www.routledge.com/A-Handbook-of-Test-Construction-Introduction-to-Psychometric-Design/Kline/p/book/9781138905122>

- Klonsky, E. D. (2009). The functions of self-injury in young adults who cut themselves: Clarifying the evidence for affect-regulation. *Psychiatry Research*, 166(2-3), 260-268.  
<https://doi.org/10.1016/j.psychres.2008.02.008>
- Klonsky, E. D. (2011). Non-suicidal self-injury in United States adults: Prevalence, sociodemographics, topography and functions. *Psychological Medicine*, 41(9), 1981-1986.  
<https://doi.org/10.1017/S0033291710002497>
- Klonsky, E. D., & Olino, T. M. (2008). Identifying clinically distinct subgroups of self-injurers among young adults: A latent class analysi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76(1), 22-27.  
<https://doi.org/10.1037/0022-006X.76.1.22>
- Kothadia, R. J., Joshi, K. G., & Frierson, R. L. (2022). Risk factors for nonsuicidal self-injury: A review of the evidence. *Current Psychiatry*, 21(8), 15-25. <https://doi.org/10.12788/cp.0251>
- Krause, N. (2004). Stressors arising in highly valued roles, meaning in life, and the physical health status of older adults. *The Journals of Gerontology, Series B: Psychological Sciences and Social Sciences*, 59(5), S287-S297.  
<https://doi.org/10.1093/geronb/59.5.S287>
- Kress, V. E., Newgent, R. A., Whitlock, J., & Mease, L. (2015). Spirituality/religiosity, life satisfaction, and life meaning as protective factors for nonsuicidal self injury in college students. *Journal of College Counseling*, 18(2), 160-174. <https://doi.org/10.1002/jocc.12012>
- Kuepper, Y., Alexander, N., Osinsky, R., Mueller, E., Schmitz, A., Netter, P., & Hennig, J. (2010). Aggression-interactions of serotonin and testosterone in healthy men and women. *Behavioural Brain Research*, 206(1), 93-100.  
<https://doi.org/10.1016/j.bbr.2009.09.006>
- Lee, D. A. (2005). The perfect nurturer: A model to develop a compassionate mind within the context of cognitive therapy. In P. Gilbert (Ed.), *Compassion: Conceptualisations, research and use in psychotherapy* (pp. 326-351). Routledge.  
<https://www.taylorfrancis.com/chapters/edit/10.4324/9780203003459-12/perfect-nurturer-deborah-lee>
- Lewis, H. B. (1971). Shame and guilt in neurosis. *Psychoanalytic Review*, 58(3), 419-438.  
<https://www.proquest.com/scholarly-journals/shame-guilt-neurosis/docview/1310161519/se-2>
- Linehan, M. M. (1993). Dialectical behavior therapy for treatment of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 Implications for the treatment of substance abuse. In L. S. Onken, J. D. Blaine, & J. J. Boren (Eds.), *NIDA research monograph: Vol. 137. Drug abuse treatment and research: The fifth national drug abuse research symposium* (pp. 201-216).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https://pubmed.ncbi.nlm.nih.gov/8289922/>
- Lloyd, E. E. (1997). *Self-mutilation in a community sample of adolescents* [Doctoral dissertation, Louisiana State University and Agricultural & Mechanical College]. LSU Digital Commons.  
[https://repository.lsu.edu/gradschool\\_disstheses/6546/](https://repository.lsu.edu/gradschool_disstheses/6546/)
- Lloyd-Richardson, E. E., Baetens, I., & Whitlock, J. L. (Eds.). (2024). *The Oxford handbook of nonsuicidal self-injury*. Oxford University Press.  
<https://doi.org/10.1093/oxfordhb/978019761127>

- 2.001.0001
- Luoma, J. B., Guinther, P. M., Lawless DesJardins, N. M., & Vilardaga, R. (2018). Is shame a proximal trigger for drinking? A daily process study with a community sample. *Experimental and Clinical Psychopharmacology*, 26(3), 290-301. <https://doi.org/10.1037/pha0000189>
- Mann, J. J. (2003). Neurobiology of suicidal behaviour. *Nature Reviews Neuroscience*, 4(10), 819-828. <https://doi.org/10.1038/nrn1220>
- Mann, J. J., Waternaux, C., Haas, G. L., & Malone, K. M. (1999). Toward a clinical model of suicidal behavior in psychiatric patients. *The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56(2), 181-189. <https://doi.org/10.1176/ajp.156.2.181>
- Marco, J. H., Garcia-Alandete, J., Pérez, S., Guillen, V., Jorquera, M., Espallargas, P., & Botella, C. (2015). Meaning in life and non-suicidal self-injury: A follow-up study with participants with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 *Psychiatry Research*, 230(2), 561-566. <https://doi.org/10.1016/j.psychres.2015.10.004>
- Marschall, D., Sanftner, J., & Tangney, J. P. (1994). *The state shame and guilt scale* [Measurement instrument]. George Mason University. <https://mason.gmu.edu/~jtangney/measures.html>
- McEvoy, D., Brannigan, R., Cooke, L., Butler, E., Walsh, C., Arensman, E., & Clarke, M. (2023). Risk and protective factors for self-harm in adolescents and young adults: An umbrella review of systematic reviews. *Journal of Psychiatric Research*, 168, 353-380. <https://doi.org/10.1016/j.jpsychires.2023.10.017>
- Miao, M., Zheng, L., & Gan, Y. (2021). Future-oriented function of meaning in life: Promoting hope via future temporal focu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179, Article e110897. <https://doi.org/10.1016/j.paid.2021.110897>
- Neff, K. D. (2003). The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 scale to measure self-compassion. *Self and Identity*, 2(3), 223-250. <https://doi.org/10.1080/15298860309027>
- Nock, M. K. (2010). Self-injury. *Annual Review of Clinical Psychology*, 6, 339-363. <https://doi.org/10.1146/annurev.clinpsy.121208.131258>
- Nock, M. K., & Favazza, A. R. (2009). Nonsuicidal self-injury: Definition and classification. In M. K. Nock (Ed.), *Understanding nonsuicidal self-injury: Origins, assessment, and treatment* (pp. 9-18).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https://doi.org/10.1037/11875-001>
- Nock, M. K., Joiner Jr, T. E., Gordon, K. H., Lloyd-Richardson, E., & Prinstein, M. J. (2006). Non-suicidal self-injury among adolescents: Diagnostic correlates and relation to suicide attempts. *Psychiatry Research*, 144(1), 65-72. <https://doi.org/10.1016/j.psychres.2006.05.010>
- Nock, M. K., & Prinstein, M. J. (2004). A functional approach to the assessment of self-mutilative behavior.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72(5), 885-890. <https://doi.org/10.1037/0022-006X.72.5.885>
- O'Donnell, O., House, A., & Waterman, M. (2015). The co-occurrence of aggression and

- self-harm: Systematic literature review. *Journal of Affective Disorders*, 175, 325-350.  
<https://doi.org/10.1016/j.jad.2014.12.051>
- Owens, D., Horrocks, J., & House, A. (2002). Fatal and non-fatal repetition of self-harm: Systematic review. *The British Journal of Psychiatry*, 181(3), 193-199.  
<https://doi.org/10.1192/bjp.181.3.193>
- Schnell, T., & Krampe, H. (2020). Meaning in life and self-control buffer stress in times of COVID-19: Moderating and mediating effects with regard to mental distress. *Frontiers in Psychiatry*, 11, Article e582352.  
<https://doi.org/10.3389/fpsy.2020.582352>
- Shafti, M., Taylor, P. J., Forrester, A., Handerer, F., & Pratt, D. (2023). A systematic review of the co-occurrence of self-harm and aggression: Is dual harm a unique behavioural construct?. *Frontiers in Psychiatry*, 14, Article e1083271.  
<https://doi.org/10.3389/fpsy.2023.1083271>
- Shafti, M., Taylor, P. J., Forrester, A., & Pratt, D. (2021). The co-occurrence of self-harm and aggression: A cognitive-emotional model of dual-harm. *Frontiers in Psychology*, 12, Article e586135.  
<https://doi.org/10.3389/fpsyg.2021.586135>
- Steger, M. F., Frazier, P., Oishi, S., & Kaler, M. (2004). The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meaning in life questionnaire [Unpublished Manuscript, University of Minnesota]. University of Minnesota.
- Steger, M. F., Frazier, P., Oishi, S., & Kaler, M. (2006). The meaning in life questionnaire: Assessing the presence of and search for meaning in life.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3(1), 80-93.  
<https://doi.org/10.1037/0022-0167.53.1.80>
- Störkel, L. M., Karabatsiakos, A., Hepp, J., Kolassa, I. T., Schmahl, C., & Niedtfeld, I. (2021). Salivary beta-endorphin in nonsuicidal self-injury: An ambulatory assessment study. *Neuropsychopharmacology*, 46(7), 1357-1363.  
<https://doi.org/10.1038/s41386-020-00914-2>
- Sun, F. K., Wu, M. K., Yao, Y., Chiang, C. Y., & Lu, C. Y. (2022). Meaning in life as a mediator of the associations among depression, hopelessness and suicidal ideation: A path analysis. *Journal of Psychiatric and Mental Health Nursing*, 29(1), 57-66.  
<https://doi.org/10.1111/jpm.12739>
- Swogger, M. T., You, S. E., Cashman-Brown, S., & Conner, K. R. (2011). Childhood physical abuse, aggression, and suicide attempts among criminal offenders. *Psychiatry Research*, 185(3), 363-367.  
<https://doi.org/10.1016/j.psychres.2010.07.036>
- Tang, J., Ma, Y., Guo, Y., Ahmed, N. I., Yu, Y., & Wang, J. (2013). Association of aggression and non-suicidal self injury: A school-based sample of adolescents. *PLOS ONE*, 8(10), Article e78149.  
<https://doi.org/10.1371/journal.pone.0078149>
- Tangney, J. P., & Dearing, R. L. (2003). *Shame and guilt*. Guilford press.  
<https://www.guilford.com/books/Shame-and-Guilt/Tangney-Dearing/9781572309876>
- Tilghman-Osborne, C., Cole, D. A., Felton, J. W., & Ciesla, J. A. (2008). Relation of guilt, shame, behavioral and characterological self-blame to depressive symptoms in

- adolescents over time.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27(8), 809-842.  
<https://doi.org/10.1521/jsocp.2008.27.8.809>
- VanDerhei, S., Rojahn, J., Stuewig, J., & McKnight, P. E. (2014). The effect of shame proneness, guilt proneness, and internalizing tendencies on nonsuicidal self-injury. *Suicide and Life Threatening Behavior*, 44(3), 317-330.  
<https://doi.org/10.1111/sltb.12069>
- Vos, J. (2018). *Meaning in life: An evidence-based handbook for practitioners*. Bloomsbury Publishing.  
<https://www.bloomsbury.com/us/meaning-in-life-9781137576682/>
- Wang, Y. J., Li, X., Ng, C. H., Xu, D. W., Hu, S., & Yuan, T. F. (2022). Risk factors for non-suicidal self-injury (NSSI) in adolescents: A meta-analysis. *EClinicalMedicine*, 46, Article e101350.  
<https://doi.org/10.1016/j.eclinm.2022.101350>
- Whelton, W. J., & Greenberg, L. S. (2005). Emotion in self-criticism.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38(7), 1583-1595.  
<https://doi.org/10.1016/j.paid.2004.09.024>
- Whipp, A. M., Korhonen, T., Raevuori, A., Heikkilä, K., Pulkkinen, L., Rose, R. J., Kaprio, J., & Vuoksima, E. (2019). Early adolescent aggression predicts antisocial personality disorder in young adults: A population-based study. *European Child & Adolescent Psychiatry*, 28(3), 341-350.  
<https://doi.org/10.1007/s00787-018-1198-9>
- Whitlock, J., Muehlenkamp, J., & Eckenrode, J. (2008). Variation in nonsuicidal self-injury: Identification and features of latent classes in a college population of emerging adults. *Journal of Clinical Child & Adolescent Psychology*, 37(4), 725-735.  
<https://doi.org/10.1080/15374410802359734>
- Wolff, J. C., Frazier, E. A., Esposito-Smythers, C., Becker, S. J., Burke, T. A., Cataldo, A., & Spirito, A. (2014). Negative cognitive style and perceived social support mediate the relationship between aggression and NSSI in hospitalized adolescents. *Journal of Adolescence*, 37(4), 483-491.  
<https://doi.org/10.1016/j.adolescence.2014.03.016>
- Xavier, A., Pinto Gouveia, J., & Cunha, M. (2016). Non-suicidal self-injury in adolescence: The role of shame, self-criticism and fear of self-compassion. *Child & Youth Care Forum*, 45(4), 571-586.  
<https://doi.org/10.1007/s10566-016-9346-1>
- Zhang, Y., Mei, S., Li, L., Chai, J., Li, J., & Du, H. (2015). The relationship between impulsivity and internet addiction in Chinese college students: A moderated mediation analysis of meaning in life and self-esteem. *PLOS ONE*, 10(7), Article e0131597.  
<https://doi.org/10.1371/journal.pone.0131597>
- Zhang, Y., & Zhang, L. (2023). Relationship among aggression, non-suicidal self-injury, and depression in youths. *Iranian Journal of Public Health*, 52(8), 1711-1719.  
<https://doi.org/10.18502/ijph.v52i8.13410>
- Zuroff, D., Santor, D., & Mongrain, M. (2005). Dependency, self-criticism, and maladjustment. In J. S. Auerbach, K. N. Levy, & C. E. Schaffer (Eds.), *Relatedness, self-definition and mental representation: Essays in honor of Sidney J. Blatt* (pp. 75-90). Routledge.

이은미 · 김소정 / 공격성과 비자살적 자해간의 관계: 삶의 의미와 수치심의 조절된 조절효과

<https://www.taylorfrancis.com/chapters/edit/10.4324/9780203337318-14/dependency-self-criticism-maladjustment-john-auerbach-kenneth-levy-carrie-schaffer>

원고접수일 : 2025. 04. 24.  
수정원고접수일 : 2025. 07. 17.  
게재확정일 : 2025. 07. 30.

## The Relationship Between Aggression and Non-Suicidal Self-Injury: The Moderated Moderation Effect of Meaning in Life and Shame\*

Eunmi Lee<sup>1)</sup>

Sojung Kim<sup>2)†</sup>

<sup>1)</sup>Department of Psychology, Yeungnam University, Master's student

<sup>2)</sup>Department of Psychology, Yeungnam University, Assistant Professor

Studies have demonstrated the association between aggression and nonsuicidal self-injury (NSSI); however, research on the specific factors influencing this relationship is limited. This study investigated whether meaning in life and shame moderate the link between aggression and NSSI. A total of 300 adults with a history of NSSI (36.3% male, 63.7% female; age range: 19-67 years,  $M = 34.76$ ,  $SD = 11.02$ ) completed self-report questionnaires. Data were analyzed using the SPSS PROCESS macro (Model 3). Results revealed a significant three-way interaction among aggression, meaning in life, and shame in predicting NSSI ( $\beta = 0.09$ ,  $p = .014$ ). The positive association between aggression and NSSI was stronger at lower levels of meaning in life. Moreover, the buffering effect of meaning in life was significant only when shame was low ( $\beta = -0.18$ ,  $p = .03$ ). These findings suggest that meaning in life may serve as a protective factor against NSSI in individuals with low shame, highlighting the need for interventions that enhance meaning in life for this group. This study contributes to targeted prevention and intervention strategies for NSSI.

*Keywords* : aggression, nonsuicidal self-injury (NSSI), meaning in life, shame, moderated moderation effect

---

\* Parts of this paper were presented as an e-poster at the 2025 Spring Conference of the Korean Clinical Psychology Association.

† Corresponding Author : Sojung Kim / Department of Psychology, Yeungnam University, Assistant Professor / (38541) 280 Daehak-ro, Daedong, Gyeongsan-si, Gyeongsangbuk-do, Republic of Korea / Tel: 053-810-2235 / E-mail: kimsojung@yu.ac.kr